

광양시 '시민·직원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선포

안전문화 정착 건강일터 조성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배포 등

광양시가 중대재해예방 실천 의지를 표명하며 시민과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주순선 부시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및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선포식 및 직원교육은 광양시의 중대재해예방 실천 의지와 안전·보건 방침을 대내·외로 표명하고 전문가 초청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로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실시됐다.

시는 △안전 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전사고 예방 △유해·위험요인 발굴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 △안전·보건 목표설정 후 개선 시행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중대재해 제로 결의 퍼포먼스로 전직원의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광양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고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1·2부로 나누어 4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1부는 중대산업재해 교육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상범 부장이 △중대재해 용어 △중대재해 대상 사례 등을 교육한다. 대상은 관리감독자, 담당자, 현업 근로자이다.

2부는 중대시민재해 교육으로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중대시민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동향 등을 교육한다. 대상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관리 공무원이다.



광양시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및 직원교육'을 시행, 시민과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방침을 지난 23일 선포했다. **광양시 제공**

정인화 광양시장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 동일한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 징후가 나타난다"며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공직자들이 점검과 사전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담팀을 설치해 사업장별 안전·보건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배포 등 시민과 공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참나무 표고버섯 종균 접종 장흥군 유치면

표고버섯 전국 최대 산지인 장흥군 유치면은 봄철 본격적인 원목표고 종균 접종 시기를 맞아 종균 접종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치면은 장흥담 상류에 위치해 측사나 공장 등 특별한 오염원이 없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청정 지역 유치에서 참나무 진액을 양분삼아 재배되는 표고버섯은 맛과 향, 식감이 다른 지역 표고버섯보다 우수하다.

유치면 표고작목회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배지버섯의 시장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표고버섯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여수시, 캠페인 등 홍보 총력

여수시가 친환경 대체소재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으로 채운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연분해까지 500년 이상이 걸리고 매립하거나 강과 바다로 유입될 경우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물, 소금, 전분 등 친환경 대체소재 아이스팩 사용 권장을 위한 캠페인 추진 및 홍보물 배부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 등 아이스팩 구입비용 절감 아니라 아이스팩 매립·각각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은 지구환경을 살리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축산 맞춤형 종합 컨설팅 보성군, 한우농가 49명 대상

보성군은 지난 24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해 한우농가 4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중축개량협회 최임수 전남광주본부장, 전 국립축산과학원 백광수 연구관 등을 초청해 강의 및 심층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암소 선발 및 씨수소 정액 선택 등 한우 개량과 임신우 번식 관리, 발정 동기화, 인공 수정 기술 등 한우 번식에 관한 사항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컨설팅 후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번식 및 사양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이 컨설팅을 통해 소득향상으로 이어질길 희망한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한우 임신 판단 키트 지원,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등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장흥군,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심는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장흥군은 지난 22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장흥 해당산업단지에서 군의원, 직원, 임업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은행나무를 장흥군 제공

보성군 '전남 방문의 해' 서울 페스티벌서 매력 뽐내

보성군은 지난 21~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해 보성군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성군 홍보관은 특산물을 전시하고 관광지 소개, 여행 상담, 버스 방문 이벤트, 보성차(茶) 시음회 등을 진행했다.

군은 오는 4월29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와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 홍보를 위해 보성군 대표 차밭으로 알려진 대한다면 무료입장권을 배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보성 홍보관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보성차 시음회에서 한총리와 김 지사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보성다향대축제와 통합으로 개최되는 보성세계차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보성차 세계성과 우수성에 공감했다.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은 "지역 방문 유도를 위해 보성차밭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이벤트가 인상 깊었다"며 "보성에 놀러가 푸른 차밭을 보고 보성차를 마시고 싶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전남방문의 해 기조에 맞춰 세계차엑스포, 다향대축제, 불꽃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철쭉제 등을 통합, 개최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준비한다. **김은지 기자**

광양시 '벚꽃 야경길' 조성 백운산 자연휴양림

광양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벚꽃길은 목재문화체험장 뒤편에서 지방하천인 추산천까지 이어지는 왕복 300m 구간으로 자연 휴양림 내에서 빛나기가 가장 밀집돼 매해 봄마다 벚꽃을 감상하기 위한 방문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벚꽃 개화기간에 맞춰 야간 경관조명을 밝히고 낙화 이후에는 투광등에 색을 가미해 점등하는 등 계절별 활용도를 높여 휴양림의 이색적인 산책 코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경암 휴양림사업소장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에도 낭만적인 벚꽃길이 조성됐다"며 "봄 햇살과 함께 찾아온 벚꽃이 감동과 치유의 기회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나선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5억2000만 원을 투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벼 중심에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과수·채소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벼는 1ha 이상, 벼 이외 품목은 0.1ha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

지 및 개인 농가이다.

지원한도는 인증단계별 ha당 △벼·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50만원 △채소는 유기농 160만원, 무농약 100만원 △과수는 유기농 18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다.

단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조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친환경농업 인증기간 동안 인증포기 후 다시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대표 또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여수시, 최대 2000만원 보장

여수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내년 3월 5일까지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혜택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6건에 총 4억3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여수=이경기 기자**